2026년 제주 전국체전 준비 본격

제주도, 대회 전담팀 지원협의회 열고 협력 강화
4월 중순까지 경기장 실태조사 등 거쳐 국비 신청
장애인전국체육대회 대비 편의시설 확충 계획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준비 전담팀(TF) 지원협의회 회의를 여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오는 2026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관련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 담당부서, 행정시 체육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기장 시설 확충 등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월 중순까지 도·행정시·체육회가 경기장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종목별 경기장 배정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범위 등 전국체전 시설확충 기본 로드맵을 마련해 4월말까지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전국체육대회 후속대회인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체육대회 준비 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한 시설확충과 함께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체전이 되도록 전 도민 장애인 배려 문화 확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스포츠로 건강한 제주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같은 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7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20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16강 진출 향한 드라이브 샷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테크놀로지스 매치 플레이 임성재와 매버릭 맥닐리(미국)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임성재가 8번홀에서 드라이브 샷을 하고 있다. 이 경기에서 임성재가 8홀차 대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KPGA 코리안투어-초등선수 동반 '티샷'

제2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위너스 매치플레이
28~29일 블랙스톤 제주서 열려… 16개조 겨뤄

제2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위너스 매치플레이가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블랙스톤 제주 남, 동 코스에서 펼쳐진다.

23일 KPGA에 따르면 이 대회는 국내 최초로 KPGA 코리안투어 선수 1인과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이하 초등연맹) 소속 남자 선수 1인이 짝을 이뤄 함께 경기로, 지난해 첫 선을 보여 관심이 집중됐다. 주니어 선수들에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투어 선수와 골프 꿈나무 간 최고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회 방식은 KPGA 코리안투어 선수 1인과 초등연맹 선수 1인이 2인 1조로 편성돼 스크램블 방식(각자 티샷을 한 뒤 더 좋은 지점에서 다음 샷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16개조(32명)가 출전하며 16강 전부터 결승전까지 18홀 팀 매치플레이 토너먼트를 펼쳐 우승팀을 가린다.

유소년 기량 발전에 의의를 둔 특별한 대회인 만큼 참가하는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디펜딩 챔피언' 허인회(36·금강주택)를 필두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한 이형준(31·웰컴저축은행)과 문경준(41·NH농협은행), 통산 11승의 '승부사' 강경남(40·대선주조), 지난해 제네시스 포인트 2위 서요섭(27·DB손해보험) 등이 나선다.

이들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 초등학생 16명은 제주 함덕초 오형준을 포함 경기와 충남(이상 5명),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북 등 9개 시도에서 선발됐다. 제주 오형준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 13세 이하부에서 5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다. 조상윤기자

히말라야 14좌 완등 "한 걸음 더"

제주산악인들 24일 히말라야 마칼루원정대 발대식
에베레스트 시작으로 12좌 완등… 13좌 등정 출발

제주산악인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프로젝트 성공이 고지를 앞두게 됐다.

제주도산악연맹(회장 변태보)은 24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에서 2023년 제주 마칼루(8463m) 원정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등정을 알릴 예정이다.

제주산악인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반은 에베레스트(8848m) 등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000m급 12좌 등정을 마쳤다. 이번 13좌 마칼루 등정에 이어 마지막 14좌 칸첸중가(8588m) 만 남겨둔 상태다.

제주산악인은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에 이어 K2(8611m), 로체(8518m), 초오유(8203m), 다울라기리(8169m), 마나슬루(8165m), 낭가파르바트(8128m), 안나푸르나(8092m), 가셔브롬1봉(8070m), 브로드피크(8048m), 가셔브롬2봉(8036m), 시샤팡마(8027m)를 등정했다.

제주산악인 마칼루 원정대는 이날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 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6월 3일 제주도로 돌아오는 2개월의 원정 계획을 발표한다.

제주산악인 마칼루 원정대원은 변태보(제주YMCA산우회)단장을 비롯 조문용(제주에이스클라이밍산악회)원정대장, 김동진(제주YMCA산우회)등반대장, 강성춘(제주산악회)대원, 박성민(제주도하늘산악회)대원, 문정식(제주산악회) 대원, 이창백(한국설암산악회) 대원이 참여한다. 또 이번 마칼루 원정을 위해 고동린 추진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추진위원들이 함께 한다.

원정대는 마칼루 원정에 앞서 지난 겨울 한라산 등에서 설산 훈련 등을 마치고 마칼루 북서벽 루트로 등정할 계획이다.

네팔 쿰부 히말라야 산군에 위치한 마칼루는 히말라야 8000m 14좌 가운데 빙설의 혼합지역으로 가파른 경사면과 눈사태의 위협으로 등반하기 어려운 고봉에 속한다. 특히 마칼루 남서벽은 낭가파르밧의 루팔벽과 함께 가장 등정 난이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마칼루 원정대원들은 "제주도민과 제주산악인의 기상을 알리기 위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정이 모두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에 임했다"며 "13좌 마칼루 원정대의 등정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한라산 등에서 설산 훈련을 하고 있는 제주 마칼루 원정대. 제주도산악연맹 제공

'농어촌지역 생활체육기동반' 4월부터 운영

제주도체육회 오는 29일까지 참여단체 모집

제주도 내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생활체육기동반'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송승천)는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 농어촌지역 생활체육기동반 운영'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참여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10개소를 모집하고, 선정된 단체에는 생활체육기동반으로 채용된 현장 지도자를 파견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도체육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4-717-7129) 또는 담당자 이메일(phm08@daum.net)로 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단체의 시설과 현장점검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참가신청 등 관련 공지사항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정보알림/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생활체육부(064-717-714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윤기자